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4월 6일(금) ..(음력 2월 21일).. Пятница 6 апреля 2018г. № 13(11678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병사들의 명패에 적힌 이름들>전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역사관에서 열려

지난 3일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관에서 <병사들의 명패에 적힌 이름들>이란 멀티미디어 전시회가 열렸다. <러시아의 탐사 운동> 사회단체가 멀티미디어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일 무명 용사의 날에 모스크바에서 출발하여 국내 20개 도시의 역사공원에서 펼쳐졌다.

대조국전쟁 전사자들의 유골을 찾고 무명 참전자들의 이름을 발굴하는 이 단체는 애국심을 키우는 여러 기획들을 실시하고 있다. 발굴된 대조국전쟁 시 군인들의 명패에는 이름, 출생년도와 날짜, 출생지,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전시에는 참전자 1만8천 명의 이름들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대조국 전쟁의 레닌그란드 전투, 스탈린그란드 전투, 모스크바 전투, 르제브 전투, 카렐리아와 북극의 작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동 인구통계학 발전>전국 컨퍼런스 진행

4월 3-4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4회 <극동 인구 통계학 발전>전러시아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회의실에서 러시아 여러 지역 선두 전문가 30여명, 정부 관계자와 민간 대표, 주 보건부와 주사회복지정책부 전문가 등이 모여 세션회의와 원탁 모임을 통해 복지의 성장, 이민정책, 보건문제, 출생률과 가정의 가치 강화, 사회통계적 지역 정치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과 방안들, 연구 자료들을 소개하고 공유했다.

극동지역개발부 세르게이 카차예브 차관은 사할린에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된 이유는 사할린은 출생률에서 1년 반 만에 6658명이 태

어나 극동지역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역 지원프로그램들이 높은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정부 웨라 웨르비나 수상은 지역 인구통계학 발전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1년간 사할린주 인구수가 1251명으로 증가하여(0.7%) 4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이민으로 사할린 인구수가 2373명으로 증가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최근 25년간 섬지역 인구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할린으로부터의 이주 때문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 사할린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계획된 대로 68.7세로 나타났다. 또

한 사할린주는 신생아 1000명 중 사망은 4.7명으로(전국 5.8명) 영아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다. 최근에는 산모 사망 사실도 기록되지 않았다.

웨르비나 수상은 유치원 자리 배치, 주거 부족, 자녀들의 재정 사항, 보건 분야에서 고품질 서비스 향상 등, 문제해결을 통해 이러한 성공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웨라 웨르비나 수상은 주 보건부의 최근 변경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2017년에 사할린주에는 주 중앙진료센터의 수술관, 트로이츠코예 소진료소, 주 산기센터와 의료원 분관 3곳, 아르기-파기 소진료소

가 새로 건설되어 운영되었다.

최근 3년간 섬지역에서는 새 의료원 분관 17곳, 병원 진료소 6곳을 신축했다.

작년에는 현대 진단 장비를 갖춘 구급차 3대, 의료기관들을 위한 차량 59대(그중 49대 구급차)를 구입했다.

주내에서는 고급기술의 의료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는 48%가 증가되었다. 우선 순위로 기본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는 기초진료 의료진과 간호사 지원에 대한 법안을 작성 중이며 인력유치 프로그램 실시로 주에는 의사 549명과 간호사 612명이 이주했다.

단신

사할린에서 제1회 국제미디어포럼 개최

4월 12-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회 러시아 섬지역 국제미디어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러시아연방대통령 극동연방구전권대표 행정실과 러시아기자동맹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대회 프로그램에는 35여 개 섹션, 연방 전문가와의 만남, 워크숍, 사업 게임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극동지역에서 신경제정책>, <극동 토지 분배의 섬들: 전망, 목적, 해결책>, <언론매체: 발전 전망>, <라디오방송의 도시 뉴스: 새로운 형식> 등의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극동 리포터> 무료 미디어학교 기획이 공식적으로 소개되며 주최 측은 이날 수강생 명단(50명, 지원자 보다 많음)과 학교 개학일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할린의 첫 국제미디어포럼에는 많은 귀빈들이 초대되었는데 러시아기자동맹 블라지미르 솔로비요브 회장의 참가도 확인되었다.

2018년 9월 9일 사할린주 12개 구역에서 선거 진행

9월 9일을 선거일로 정해 사할린주에서 여러 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코르사코브, 유즈노쿠릴스크와 쿠릴스크 구역(제9선거구)들에서 주두마 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2017년 주두마 의원으로 선출된 세르게이 포돌란이 의원 직무를 사퇴한 후 현재 사할린주 부지사(모스크바 소재 업무 담당)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날 홈스크, 아니와, 마카로브, 쿠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오히, 티롭스코예, 스미르니호,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두마 의원으로 한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2019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바람에 안 하기로 했다.

사할린주 수산업체 명태 13만5000톤 획득

지난 3일(화) 연방수산청 와실리 소콜로브 부청장의 주재로 오호츠크해 명태와 청어잡이 어획량 예비측정결과에 대한 오호츠크해 성어기본부회의에서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이 연초부터 오호츠크해에서 잡은 어획량은 명태가 13만 5000여톤, 청어는 1만1000여 톤에 달했다.

극동 전 지역에서 명태의 총 어획량은 약 70만 톤이며 청어는 6만5000톤으로 사할린 수산업체들이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 오호츠크 해에서는 명태잡이 A 시즌(겨울-봄)이 끝나고 있다. 전 고기잡이 업체들이 손을 놓은 상태로 극동수산업체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풍량과 유빙으로 인해 기본 어획량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오호츠크해에서 어선 204척이 고기잡이에 나선 가운데 어선 8척 정도가 날씨를 보아가며 세웨로쿠릴스크에서부터 어획에 나섰다.

새우잡이에는 어선 7척, 큰게잡이에는 어선 20척이 어획하고 있고 저인망어선 26척이 활동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봄방학 때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 한민족과 학생들과 무용교사들은 쉴 새 없이 새 작품을 익히고 있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들의 전습을 위해 방문한 **정혜진** 무용가를 만났다.

- 우선 사할린에 오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 제가 일본에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재일동포 예술단체인 금강산가극단에 관해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금강산가극단의 한국 공연을 제작하신 이철주 피디와 연이 닿았습니다.

동포사회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민족예술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이철주 피디로부터 사할린 방문을 권유 받았고, 구체적으로 <에트노스> 아동학교의 춤 전습을 제안받았죠.

- 선생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무용 전문가에 대한 꿈을 키워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무용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어릴 때 몸이 튼튼한 편은 아니였거든요. 그 시절엔 매주 월요일 운동장에서 아침 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쓰러질 정도로 체력이 약했었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무용이었어요. 어린시절 발레로 시작했고, 대학입시시험 직전에 발목을 심하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 다. 무용을 포기하기가 싫어 결국 전공을 한국춤으로 바꾸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죠.

-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고 남한전통무용 외에 북한무용도 하신다니요.

춤을 전수하기 위해 온 것이라 인연이 소중하다

서울무용협회 정혜진 이사와의 인터뷰



76년 포항 출생,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무용과 졸업, 일본 동경 오차노미대대학교에서 무용비교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수료, 현 서울무용협회 이사

- 대학 때 전통무용보다는 최승희 류의 신무용 계열의 춤을 많이 찾았고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북한무용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고민없이 북한무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일본에 와서 재일조선인 동포사도 알게 되면서 재일조선인 동포예술사도 연구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유일한 해외국립예술단체인 <금강산가극단> 소속의 인민예술가인 강수내 책임 안무가로부터 쟁강춤 등 몇몇 작품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도 해외동포 무용 비교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 <에트노스>에서 연수를

진행하시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어땠는지요? 어려웠던 점은요?

- 일본의 조선학교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본국에 사는 동포로서 해외동포를 몰랐고 또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민족예술을 지키기 힘든 환경인데도 지켜주어서 같은 동포로서, 민족으로서 너무 고맙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상이며 소품을 직접 만들어가며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조선학교도 그렇지만 <에트노스>도 북한춤을 먼저 접했고, 전통춤을 많이 접하지 않은 영향이겠지만 빠른 동작의 춤을 선호합니다. 공연은 선호하는 상연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춤이든 한국춤이든 어떤 스타일의 춤을 추더라도 기본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발스텝이나 시선, 손동작, 몸 방향을 쓰는 데 익숙해져야 춤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기본이 약한 면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기본기를 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전에 기본동작을 몸풀기로 항상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할린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춤을 전수하기 위해 온 것이라 일

단 인연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궁중무용의 형식을 빌린 신무용 '화관무'의 새로운 형식인 <여명의 빛>과 <삼고무>를 전수하였는데, 열의를 가지고 배움에 참가한 선생님들과의 인연도 그렇고, 특히 낮은 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우리 민족예술을 지키고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선생님께서 무려 5일간 전습을 시키셨는데 연습 마지막 날에 새 작품 발표회를 하셨다면요.

-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도 열의있게 참가해주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전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전습한 작품을 마음에 들어해서 나 역시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 학생들이 배운 작품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춤(여명의 빛)이라서 이 춤을 좋아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춤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발표회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 이 춤을 좋아합니다' 란 문자를 카카오 톡으로 저에게 보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 사할린과 관련하여 앞으로

의 계획은 있으신지?

- 이철주 피디와 상의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춤 관련 단체와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등과 논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에트노스 아이들을 포함해 동포 청소년들 중에서 민족예술을 전공하고자 할 때 우대해 줄 수 있는 국내 대학교와도 교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프로 무용수가 되어서 다시 사할린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로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비록 개인에 불과하지만, 이번 인연을 계기로 에트노스 아동학교와 춤으로 남은 3년을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춤 공연을 <에트노스>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체호브와 사할린> 청년 학술대회 개최

오는 4월 20일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에서 <체호브와 사할린>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여기에 전례대로 사할린섬 지역연구서, 안톤 체호브의 작품들, 향토문학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발휘할 고학년생들이 모여든다.

이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오조르스크에, 트로이츠크에, 키로브스크에의 9-11학년 학생들, 콜레즈와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체호브와 사할린> 학술대회는 문학예술박물관의 '체호비아나' 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기행사다. 학술대회의 목적은 탐구력 연마의 방식으로 체호브 문학유산과 사할린 역사에 학생들의 지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20번째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모든 참가자와 교육자들이 특별증서와 상을 받게 되며 또한 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юнош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20 апреля состоитс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Она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ерет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готовых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изучения посвященной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книги, творчества Антона Чехова,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родного острова.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али заявки учащиеся 9-11 классов из школ, колледжей и техникум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зерского, Троицкого, Кировского.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Чехов и Сахалин" — традицио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юношеской "Чеховианы" музея. Целями конференции являются приобщ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к чеховскому наследию, 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развит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личности путе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Этой весной конференция ю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ойдет в двадцатый раз. Все участники и педагоги будут отмеч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дипломами и призами. Также для ребят приготовят интересную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제 8 회 인형극장축제가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병풍 뒤 마법의 세계> 인형극장축제가 8번째 열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창작 경연에 주의 8개 지방자치체에서 11개 아마추어 인형극단이 참가한다고 전해졌다. 공연심사는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는 안토니나 도브롤류보와 사할린 인형극장 예술 감독, 아나스타시야 코토와 배우, 그리고 알레리 키류닌 이르쿠츠크시 연극전문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축제의 일환으로 주 민속창작센터와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평생교육센터의 주최로 활동교실, 극단단장들과 아마추어 인형극단의 미술장식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 사할린 인형극장 연출가들과 알레리 키류닌 강사는 참가자들을 위한 이론과 실습의 학습 자료들을 준비했다.

인형극 경연은 4월 21일 인형극장에서 진행되며 개막식과 제1부 경연은 11시부터 13시까지, 2부는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4월 22일 14시에 같은 무대에서 인형극장 배우들은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 후에 축

제의 우승자들에게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문화고문서보관부와 주 민속창작센터가 주최한다. 무료 입장권은 인형극장 매표소에서 배포된다. 문의 전화 (4242) 72-20-62.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кукол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ьмой раз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1-22 апреля в восьмой раз пройдет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кукол «Волшебный мир за ширмой».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вуют 11 любитель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а. Их работы оценит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В его состав вошли худож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Антонина Добролюбова, артистка Анастасия Котова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ркут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училища Валерий Кириунин.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 21 по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еатр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художников-декораторов любительских театров кукол,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ОЦНТ с Сахалинским колледжем искусств и Центром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ий и практический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дготовили масте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цех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и гость Валерий Кириунин.

Конкурсный просмотр спектаклей состоится 21 апреля в театре кукол. Открытие и первая часть — с 11:00 до 13:00, вторая часть — с 14:00 до 17:00.

22 апреля в 14:00 на той же сцене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покажут спектакль из своего репертуара, затем состоится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фестиваля.

Учредителя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явля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ход по бесплатным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м билетам в кассе театра.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2) 72-20-62.

(8면에 계속)

"너무 잘했다" 우리예술단, 평양 공연 성공적 마무리



개성이 담긴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2일 윤상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북 예술단 평양 공연' 예술감독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예술단에 대해 "너무 잘했다. 다들 프로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서현이 북한곡 '푸른 버드나무'를 부를 때 이분들 손이 다 올라가 나도 눈물이 났다"며 "우리가 사실 북측 노래를 잘 몰라 이번에 북한 노래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 미안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북쪽 음악을 우리 식으로 들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3일 오후 3시30분 평양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는 '남북 합동 공연'이 진행됐다. 이 공연에는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단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관계자와 북측 시민들이 참석해 1만2000석 규모의 객석을 채웠다.

서현과 최효성 조선중앙TV 방송원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이선희, 알리, 송영, 김옥주의 노래가 이어졌다. 마지막 곡을 부르며 서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민족 한겨레"라 말했고, 최효성은 "백두에서 한라로 이어지는 하나의 조국. 통일의 새 아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남북 가수들이 함께 '다시 만나다', '우리의 소원' 등을 합창했다.

공연을 마친 뒤 만찬까지 소화한 우리 예술단은 4일 오전 귀환하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리 예술단이 남북평화 협력기원 공연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4일 오전 우리 예술단은 평양을 출발해 3시 4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선희, 서현, 레드벨벳, 윤상, 조용필, 알리 등 우리 예술단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앞서 우리 예술단은 지난달 31일 남북평화협력기원 공연을 위해 평양으로 출국했다. 당시 현송월 단장은 우리 예술단에게 "평양에 오시니 저희의 기대가 크다. 성의껏 준비해 오시니 기대가 크고 빨리 만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양에 도착한 음악감독 윤상은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는다"며 "실수하지 말고 잘 마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일 오후 6시 30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봄이 온다'가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소녀시대 서현은 "다시 만나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북측 예술단에게서 받은 감동, 남북 시민들이 받은 감동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남과 북, 북과 남의 관계에도 희망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두 시간 가량 공연이 진행됐다. 조용필,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서현, 정인, 알리, 강산에, 레드벨벳, 김광민 등 11팀은 북측 관객들 앞에서 각자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에 대해 배워요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의 의미' 주제로 전국 31개 중·고교, 대학교에서 강의 시행 2012년부터 7만여 명의 국내 중고교, 대학생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 알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국내 중·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18년도 1학기 일정이 시작된다. 올해 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는 이해교육은 4월5일 목포 덕인고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13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5개 대학 등 총 31개교에서 진행된다. 재단 임.직원, 전직 외교관,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강사들은 재외동포의 형성 배경 및 지역별 동포사회의 특징, 모국 기여 사례,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2012년부터 시행한 '찾

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지금까지 총 467회의 강의를 통해 7만여 명의 중·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다. 한우성 이사장은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이 국내 청소년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인 언론인들 고국서 모인다... '한글매체 중요성' 논의

9-13 대회에 23개국 70개 언론사 대표 등 80명 참여

전세계 한인 언론인의 모임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등지에서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한글과 재외한인 언론'이라는 주제의 대회에는 23개국 70여 개 언론사 대표와 편집 책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고,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 속 한글매체의 중요성' '재외한인 언론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인 언론인 육성 등을 위한 '기자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한인 언론인들은 이같은 논

의를 토대로 해외 한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개막식에는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각 당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 토론회에는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성준 SBS 논설위원, 김동선 재외미디어연합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에 개성공단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인언론인들이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학습과 전통문화 체험에도 나선다. 11일에는 KBS 본사를 방문하고, 12일

에는 전라북도 전주의 한옥마을과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무역지구 등을 찾아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여익환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한인언론의 미래는 있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하는 자리이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계간지 '세계한인'을 발간해 국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민주평통 모스크바, 고려인 원로 초청 통일강연회

한반도 정세 급변에 즈음해 고려인 원로 동포에게 정부 통일 정책 설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협의회(회장 김원일)는 3월 24일 모스크바 소재 한 한식당에서 '고려인 동포 원로초청,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연이어 합의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고려인 원로 동포들에게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 2부로 나누어 열렸다. 1부에서는 김원일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이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동포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어 2부에서는 만찬이 이어

졌다. 김원일 회장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 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보수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러관계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러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참석자 중의 한 명인 물리학자이며 러시아 과

학원 중신회원인 노가이 블라디미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뵈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며 "대통령께서 모스크바에 방문하시게 되면 자신도 꼭 초대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가이 블라디미르 교수를 비롯해 리 블라디미르 고려인연합회 고문, 안 아나과시 러시아 민족문제연구소 부회장, 김 유리 러시아변호사협회장, 김태성 모스크바 사할린교포협의회장 등 20여 명의 원로 고려인 동포들이 함께 자리했다. (재외동포신문)

'2018 공감과 동행' 여름캠프, 8월 서울·경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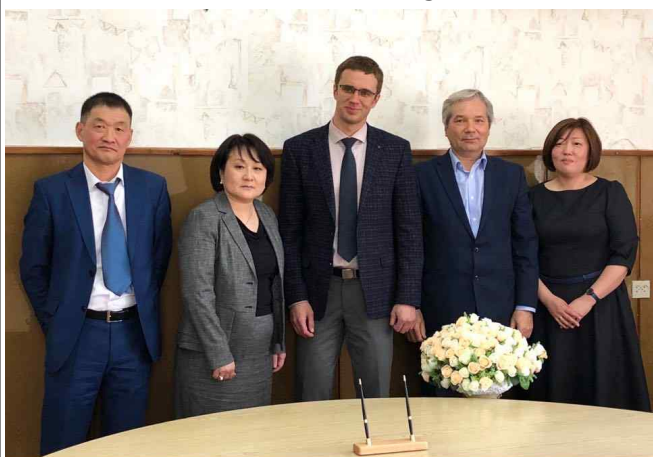
만 18세 이상 한민족 대학·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기한 4월 30일까지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이 주최하는 "2018 공감과 동행" 캠프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 캠프는 글로벌 한민족의 만남을 통해 서로 삶을 공유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준비됐으며, 만 18세 이상 한민족 대학·대학원생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모두 36명으로 중국 지역이 12명이 가장 많고 한국, 일본, 고려인, 미주 및 기타 지역이 6명씩이다. 재단 측은 항공료 일부(중국 300 달러, 일본 500달러, 고려인

500달러, 미주 및 기타지역 800~1000 달러)와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 기타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아시아발전재단의 "공감과 동행" 캠프는 지난 2016년 8월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중국 동포사회"라는 주제로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2회 캠프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열렸다. 이번 "공감과 동행" 캠프는 재외동포 신문도 후원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4월 30일까지 아시아발전재단 홈페이지(www.asiadf.org)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합격자는 개인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ласти Анивы и РООСК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5 апреля в мэрии г. Анива состоялась процедура подписания дву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ОСК и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дписи под соглашением поставили мэр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ртем Лазарев 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боте над совместными проектами, взаим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спорта и т.д.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 председатель И Вон До и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Пе Анжела.

(Наш.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нив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ООСК)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Все краски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в Сочи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м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цев 26-27 марта 2018 г.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руководства ООК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г. Сочи Сон Сергеем Иннокентиевичем. После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ОК 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г. Соч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более конкретно на 2018 год.

Основным проектом года для сочинцев наме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Все краски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очи)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18 августа 2018г. . Пот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70-летняя годовщин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еих стра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ведению столь грандиозного торжества. Помимо коре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г. Соч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олгоградской,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Юга России намечается участи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ыми ожидаются совмес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команд тэквондистов из этих стран. Проведение такого Фестиваля согласовано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 Сочи,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ключен в план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рода Сочи.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Москву Сон С.И. 27 марта посетил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де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им Се Ун по намечаем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и получил его одобрение. Переговоры 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осольством КНДР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Бомминрён по взаимн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ройдут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решено оказа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ето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в Со-



В офисе ООК

чи и наладить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щины корейцев г. Сочи и ООК.

Сочинская город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ие Соч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на в 2014 году, её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избран Сон Сергей Иннокентиевич.

Соч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ся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возрожден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укрепл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достиж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в стране через пропаганду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одвижение идей Русского мир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е ветеранов, молодых дарован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 культурным программам.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водя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акци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ы, духовных традиц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дготовлены и проведены масштабные ак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ольшие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15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2014 г.). В июле 2017 года проведен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Все краски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в г. Сочи.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13 – 14 АПРЕЛЯ

КИНОТЕАТР «САМЫЙ ЛУЧШИЙ КИНОТЕАТР»

ул. 2-я Центральная, 1-Б, ТРК Сити Молл, 3-й этаж

1. Кундо: эпоха угрозы (13 апреля, пятница 18:0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37 минут - Жанр: боевик

- Режиссер: Ан Чжон Би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5+

1862 год - правление короля Чхольчжона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Эксплуатация бедняков дворянами и алч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достигла своего апогея. Это история о благородных разбойниках клана Чхусоль с горы Чирисан, стоящих на стороне бедного, бессильного народа в деле нелегкой борьбы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2. Самая обыкновенная пара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2:0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12 минут - Жанр: романтическая мелодрама

- Режиссер: Но Док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8+

После слов «Мы расстанемся...» чувства разгораются еще больше. Коллеги по работе Донхи и Ёнын тайно встречаются уже 3 года. Скрываясь от посторонних глаз, они безумно любили друг друга и вот сегодня...они расстались. Следующим утром они снова встречаются, но на сей раз как обычные коллеги по работе.

3. Совон, что значит «Надежда»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4:1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23 минут - Жанр: драма

- Режиссер: Ли Чжу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2+

История, затрагивающая самые болезненные темы.

В одно дождливое утро по дороге в школу девочка Совон встречает пьяного незнакомого мужчину, который похищает ее и творит с ней ужаснейшие вещи ...

История семьи, затронувшая сердца миллионов зрителей.

4. Дорог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6:25)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90 минут - Жанр: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 Режиссер: Ан Чже Хун, Хан Хе Чжин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0+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основанный на трех знаменитых корейских коротких рассказах.

Смеяться, даже когда грустно.... Жить, даже когда мучительно больно. История жизни троих людей.

5. Старая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14 апреля, суббота 18:10)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117 минут - Жанр: комедия, военный

- Режиссер: Ли Чжун Ик - Возрастная категория: 12+

События этого комедийного фильма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в те стародавни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уществовало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Пэкче и Силла. Генерал Силла Ким Юсин вознамерился объединить все три. Так начинается битва за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в которой встретились войска Силла и Когурё.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звинился за подавление восстания на Чечжудо 70 лет назад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звинился за кровавое подавление народного восстания, вспыхнувшего в 1948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Выступая во вторник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восстания, вошедшего в историю как «инцидент 4 апреля», Мун Чжэ Ин сказал, что как президент он извиняется за ту боль,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ичинен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силия, допущенного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Он пообещал полностью решить вопрос реабилитац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чести и достоинства жертв этой трагедии,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выяснению правды. Для этого он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о поводу образ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жертвам трагедии и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В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о вторник в Парке мира имени 3 апреля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5 тыс. человек. 3 апреля 1948 года жители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планов создания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давления восстания погибли от 25 до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 2014 года 3 апреля отмечается как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кровавого подавления восстания на Чечжудо.

Глава МИД СК Ли Ён Хо посетит Москву 9-11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К Ли Ён Хо посетит с визитом Москву с 9 по 11 апреля. 10 апреля состоятся переговоры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двух стра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среду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По её словам, Сергей Лавров и Ли Ён Хо «обсудят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бменяются мнениями по ключев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с акцентом н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ежду тем,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глав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пока 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в Анкаре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митрий Песков.

Юг и Север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межкорейским саммитом

5 апреля в Доме мира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состоялась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га и Север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В течение четырёх часов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такие вопросы как путь следо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протокол мероприятия и е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свещ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согласовали количество жур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свещать саммит. Южнокоре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из семи человек возглавлял Ким Сан Гын из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из шести человек - Ким Чхан Сон из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На 7 апрел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отдель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кладку прямой горячей линии между главами Юга и Севера. В начале март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стран до саммита.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ов Юга и Севера

3 апрел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ов Юга и Севера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имени Чон Чжу Ёна.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объект может вместить 12 тыс. человек. Был составлен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список песен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кратила время своей части выступления в польз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рупп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Ранее уже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он занят. Артисты РК вместе с тхэквондистами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4 апреля.

Сеул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Москвы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ул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Москвы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среду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У Юн Гын,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бизнес-форума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осол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л позицию Сеула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мирным путём. Между главами РК и России установлены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этому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одолжится и будет укрепляться, подчеркнул У Юн Гын. (RKI)

Ким Чен Ир предлагал провести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Ир предлагал провести второ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о занимавший тогд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Дэ Чжун в итоге отверг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настаивая на ответном визите Кима именно в Южную Коре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источник со ссылкой на слова бывшего гла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НР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ин Гона.

Напомним, что перв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ялся в 2000 году. Тогда президент РК Ким Дэ Чжун прилетел в Пхеньян и встретился с Ким Чен Иром. Многие затем ожидали ответной поездки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ждя, но второй саммит двух Корей состоялся лишь через семь лет и при друг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езиденте.

В 2007 году Но Му Хен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Ким Чен Иром, но та встреча вновь прошла в столице КНДР. Третий по счету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должен состояться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договорились встретиться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в местечке Пханмунчжом. Источник ссылается на рассказ Син Гон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л на различных постах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е, 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им Дэ Чжуна с марта 2001 года по апрель 2003-го возглавлял НРС. Именно по линии разведок Юга и Севера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осно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и согласовывались условия, касающиес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ин Гон поделился информацией еще в 2011 году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друзьями и рядом знакомых журналистов, н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ведения не будут разглашены. Сам Син в итоге скончался от болезни в 2015 году, а Ким Чен Ир умер в конце 2011 года. С учет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третьего саммита, а также с учетом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источни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рассказать о полученной от экс-директора НРС информации по поводу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Ким Чен Ира.

"После первого саммита сразу встал вопрос о новой встрече лидеров Корей. Раз наш президент съездил в Пхеньян, то ожидалось, что Ким Чен Ир приедет к нам. Лидер КНДР сам пообещал приехать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 цитирует источник слова Син Гона. - Однако неожиданно из Пхеньяна по нашей линии (по линии НРС - прим. "РГ") мы получ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провести ответную встреч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рассказал он. Специалист высказал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Ким Чен Ир все же опасался за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потому хотел встретиться на нейтр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огласно признанию экс-директора НРС,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озадачило их. "Мы долго думали, не знали, как отреагирует на это президент Ким Дэ Чжун. В итоге доложили ему, но через Лим Дон Вона, который тогда был минист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а до этого сам возглавлял разведку", - сказал Син Гон.

Однако Ким Дэ Чжун отказался ехать в третью страну, предложив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мес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для ответ-

ного саммита. "Реакция президента Ким Дэ Чжуна оказалась такой, как мы и ожидали. Гла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Ир должен держать свое обещание, данное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 Пхеньяне. Должен приехать в Сеул. Я вон насколько старше его, но слетал же к нему в гости в Пхеньян! Если он в Сеул не хочет ехать, то пусть приезжает в Пханмунчжом или на остров Чечжу", - такова была реакция Ким Дэ Чжуна,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источника.

Было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на решение отказаться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оказало влияние и неже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чтобы все выглядело, будто Сеул все делает только на условиях Пхеньяна. Такая критика уже в то время была сильна со стороны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Южной Кореи по поводу первого саммита. Позж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еул вообще заплатил КНДР около полу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за согласие на саммит. Но Ким Дэ Чжун получил за саммит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мира.

В итоге стороны не смогли согласовать место встречи, и ответный визит Ким Чен Ира вообще н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прошел семь лет спустя,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был уже Но Му Хен, продолживший в целом курс Ким Дэ Чжуна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же лидер был прежний - Ким Чен Ир. Правда и второй саммит прошел снова в Пхеньяне.

Источник же отметил, что, похож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мнят о предложении Ким Дэ Чжуна о встрече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Когда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оехал недавно в Пхеньян, чтобы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о третьем саммите, то,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он предложил Ким Чон Ыну самому выбрать, где проводить встречу с Мун Чжэ Ином. В качестве возможных вариантов были названы Пхеньян, Сеул 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ханмунчж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сам выбрал Пханмунчжом. Возможно, что тут сыграли свою роль несколько факторов, включая память северян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вариантах Ким Дэ Чжуна, а также то, что Ким Чен Ир значительно моложе Мун Чжэ Ина, да и уже давно пора именно Северу приезжать к нам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 отметил собеседник.

Впрочем,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и острову Чечжу, который также упоминал Ким Дэ Чжун, удастся все же стать местом для важнейшего саммита, хотя и н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Недавно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 публично заявил, что готов предоставить площадку для встречи Ким Чо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ожидается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но место встречи и прочие детали пока не согласованы.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а Чечжу в 1991 году проходил совет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 СССР Михаил Горбачев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ом РК Ро Дэ У.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НОК КНДР

1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То Чжон Хван встретился в Пхеньян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КНДР Ким Иль Гуком.

За совместным обедом обсуждался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Одним из них стало учас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2018 в Джакарт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речь шла о совместном проходе сборных двух Корей на открыт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й команды.

Ранее То Чжон Хван не исключал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стороны затронули вопрос участия Севера в предстоящих в летней Олимпиаде в Токио и в зимней в Пекине,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обменов в сфере спорта. 3 апреля То Чжон Хван встретится с министром культуры КНДР Пак Чхун Намом. (KBS World)

В Сеуле начинается сезон весенних фестивалей

В Сеуле в парке Ханган, раскинушемся вдоль одноименной реки, начинается сезон весенних фестивалей. С 1 апреля по 21 мая в парке пройдет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цветов Ханган». В этот период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яти видам цветов – форзиции, вишне, рапсу, колокольчикам и розам. Все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этапно.

С 6 по 8 апреля на столичной горе Ынбон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форзиции, с 7 по 12 апреля в районе Ёйдо состоится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цветения вишни. 5 и 6 мая на острове Сорэдо на реке Ханган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рапса, а в середине мая в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арках Кансо, Кодок и Амса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юбоваться цветением колокольчиков. Это лишь часть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весне. (KBS World)

Полицейские из РК помогут российским коллегам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ЧМ по футбол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полицейские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уристов во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года в Росс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ли во вторник в Москве началь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лиц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Ли Чхоль Сон и министр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Колокольцев. МВД России заключает аналогичные согла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чьи команды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чемпионате. В Россию отправятся четверо офице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ции,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буду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14 июня по 15 июля. Ли Чхоль Сон встретился такж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 городу Москве Андреем Понорецки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готов к запуску новый цех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вышел на финальную стадию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В крестьян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гоньк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готово для запуска нового цех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мощностью 10 тонн в сутки. Современн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нов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обретено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Цех оснащен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бытовыми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системой холодного и горяче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одоотведения, приточно-вытяжной вентиляцией, локальными очист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выпускать молоко, сливки, кисло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от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йного стада предприятия.

- Запуск нового цеха позволил нам создать ше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иоритет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будет отдан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выпускаемой продукци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собствен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которой приобретен комплект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суды и реактивов, - рассказала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и «Крестьян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гоньки» Татьяна Волкова.

Решая вопросы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дел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особым приоритетом,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веренно справляется с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ей.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бились лучшего результата по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20 лет. Надои с одной коровы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или 5 876 килограммов молока, что почти на 600 килограммов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В целом, если в 2016-ом году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достигало 28,5 тысячи тонн, то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а цифра выросла до 30,8 тысячи тонн.

- Увели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молока в регионе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у мер. Во-первых, улучшена кормовая база – в 2017 году было заготовлено более 157 тысяч тонн. Во-вторых, мы провел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ферм. В дальнейшем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олока будет связан с реализацией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Совхоз Корсаковский» и компании «Грин Агро Сахалин», а также за счет заполн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ей на молочно-товарной ферме в крестьян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гоньки»,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Уже к концу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стровные аграрии планируют получить рекордную цифру в 32 тысячи тонн молока.

-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несомненно, отражаются и на объем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И это не остае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На прилавках появился большой выбор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и этом еще пару лет назад весомая часть молока с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ом доставлялась к нам с материка.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и выросшее качество молока, производимого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Сахалинским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оказ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Они касаются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й отрасли, в том числе и молочн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В 2018 году на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7 млрд рублей. В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молока. Для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и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дотация зависит от надоев, также дотируется покупка комбикормов. Еще есть субсидии на покупку моло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ловина его стоимости возмещается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 вышел в лид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числу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одного жителя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регион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более 20 н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 три крытых универс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зала,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биатлонного центра и вторая -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аэродина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тадиона в Смирных, центр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Томар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игровым залом и бассейном в Поронайске, а также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Кроме того, в 7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9 универс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

-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1084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 По их количеству на число жителей мы вышли в лидер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 сообщил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В 2017 году числ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достигло 42,6 процента. Это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А в

2020 году, как ожидается, уже половина все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станет поклонникам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российских сборных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 26 до 64 человек.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заняли 438 призовых мест,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укреплению здоровь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уровень шагнул проект «Лыжи в школ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спор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учащихся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Опыт проекта было решено транслировать и на другие виды спорта. Так появились «Хоккей в школу» и «Коньки в школу».

Сегодня перед ведомств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активнее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ынешней зимой был побит рекорд посещаемости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оторый признан экспертами лучши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ибири. Только з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его посетили более 33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выше показателей 2016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должится развитие крупнейшего на остров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н обретет новое здание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где будут расположены локерные, раздевалки, кассы, прокат, магазины по продаже спортив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и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и, а также кафе и детские горнолыжные клубы.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на горе Красной у ее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подножия появится линия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5 километров.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числе други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юга Сахалина, примет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ледовой ареной. На горе Парковой установят сис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й блок со спортив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троят около 20 н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Соврем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объект построен в селе Парусное, его общая площадь составляет 1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просторном здании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здесь же находится и квартира для фельдшера. Всего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17 новых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и две амбулатории.

- Мы очень ждали этого момента. Светло, чисто, красиво. Старый пункт уже давно вызывал вопросы, с отоплением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л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мещения не такие просторные, как здес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Надежда Показаньева.

В здании просторный холл,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и процедурный кабинеты, отд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ля аптеки. На внушительные площади у медиков уже большие планы, здесь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ыездные приемы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До райцентра от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62 километра, ближайшая участковая больница находится в 10 километрах.

- В зону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ходит и село Белинско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дву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роживают 180 человек. Не у всех есть автотранспорт, чтобы добраться до ближайшей больницы. Поэтому будет составлен график и сюда начнут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ть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Красногорской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ы Ольга Зинина.

Валентина Крестьянинова работает фельдшером в Парусном уже 50 лет и её дом не подлежит ремонту, также, как и старый ФАП. В новом, в едином блоке с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ем - двухкомнатная квартира для персонала, в которой Валентина Дмитриевна вскоре отпразднует новоселье.

- Здание пункта монолитное, у него автономная система отопления, водоснабжение налажено, установлена пожарная сигнализация. На входе есть пандус,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борудованы и в туалете, -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нтон Кирушкин.

Ещё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холодов был выполнен основной фронт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Как только позволит погода, по периметру начнётся высадка зеленых насаждений, в этом обещают помочь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вплотную приблизилась к тысяче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десятки различных акций и мероприятий, а впереди молодых ребят и девушек жду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ела и увлекательные события, отмет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ведению года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в этом году я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для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8 по 12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его проведе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400 волонтеров, как из числа добровольце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и из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будущем году состоится еще одно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2019», в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а помощь уже более 1000 добровольце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спешно провести такие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броволь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ят конкурсные отборы и посещ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 всеросси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лёты, такие как: в Красноярске – всероссийская смена «Добровольцы России» и форум «ТИМ Бирю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Амур»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Территория смыслов на Клязьме» во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и и «Таври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рым.

- От качества подготовки волонтеров, их внимания к гостям и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й, умения создать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успех столь важных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сии событий. Поэтом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будет внедрен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поддержк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единые подходы к его развитию и обеспечит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этого условия,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озглавивший заседание оргкомитета.

Сегодня Президенто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как одному из важнейших аспектов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объявил день 5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ым Днём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а 2018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в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дадут старт уникальном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проекту «Медиа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аФорума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2-13 апреля,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За две недели до начала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сбор конкурсных заявок на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журналистик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в оргкомитет портфолио будет набрана группа из 50 человек. В нее войдут не только молодые журналисты, ч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таж не превышает трех лет, но и студенты факультетов твор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узов Сахалина, Камчатки, Магадана и Приморья.

- О запуск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медиафоруме в Хабаровске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Это сразу вызвало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ообществе. Заявки на обучение поступают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рос заметно превышает предложение. На Первом МедиаФоруме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о завершении отбора претендентов и начале обучающего процесса в медиашколе,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аб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КО «Фонд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медиашколы войдут онлайн-вебинары и четыре очных слета журналистов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Якутск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бинар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о средне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3 часа в неделю. На слетах ведущие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эксперты да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отработают со слушателями базовые навыки в области журналистики. Пол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составит десять месяцев.

Напомним,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аФорум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ойдет 12-13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сс-служб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признанные эксперты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сновная миссия форума –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е островных территорий России как перспективн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личностного роста,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число задач форума, в частности, входят: развит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объединение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егиона, укрепл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с медиаобществом стран АТР.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닭볶음탕

닭은 현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야생하고 있는 들닭이 사육, 개량된 것이며, 기원전 6, 7세기경부터 사육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닭은 이미 신라의 시조설화와 관련되어 등장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알지(金幹智)의 탄생 담에 의하면, “신라왕이 어느 날 밤에 서쪽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껍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껍을 가져와 열어보니 안에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경주 김씨(慶州金氏)의 시조가 되었다.” 고 하였다. 그 뒤 그 숲의 이름을 계림이라고 하였으며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화에서 닭이 이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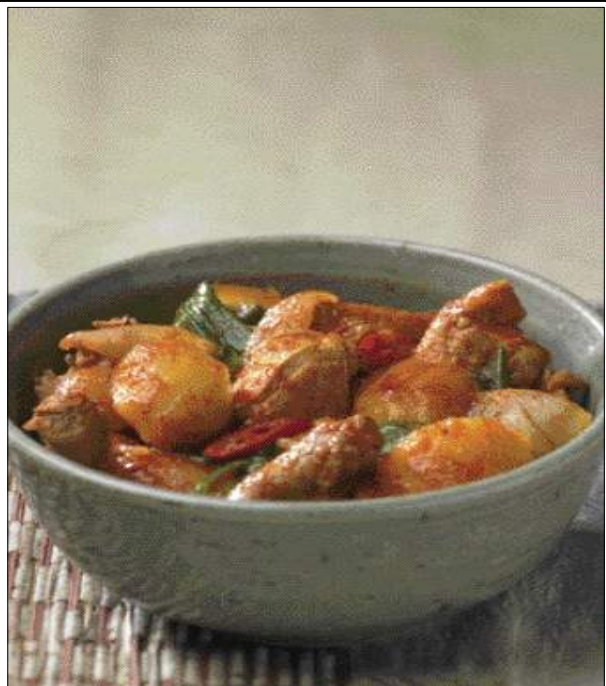
한편, 『삼국지 三國志』 위지 동이전에서는 한(韓)나라에 꼬리가 긴 세미계가 있다고 하였고, 『후한서 後漢書』에서도 마한의 장미계(長尾鷄)는 꼬리가 5척이나 된다고 하였다. 『수서 隋書』에도 백제에서 닭을 기른다는 기사가 있으며, 중국의 의학서인 『초본류 草本類』에서는 한결같이 약용으로는 우리 나라의 닭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 本草綱目』에서도 “닭은 그 종류가 매우 많아서 그 산지에 따라 크기와 형태·색깔에 차이가 있는데, 조선의 장미계는 꼬리가 3, 4척에 이르고 여러 닭 가운데서 맛이 가장 좋고 기름지다.” 고 하였다.

이러한 닭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구려 무용총 천장벽화인 주작도(朱雀圖) 중에서 긴 꼬리를 가진 닭을 연상할 수 있다. 현재는 장미계 등 토종닭이라고 할 수 있는 품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보기 어렵다. 그 대신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외국 품종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닭은 조류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의해 가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부터,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년경부터 길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삼국시대부터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길러왔고, ‘닭’이라는 말도 닭을 길조로 생각한 옛 신라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결혼식 때 사용되는 폐백닭은 닭의 다산성을 이어받아 자손이 번창하라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을 통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제2의 인생이 시작됨을 의미하기도 하듯이 우리생활과 여러 가지 의미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으로서의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연하고 맛과 풍미가 담백하며 조리하기 쉽고 영양가도 높아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요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닭을 이용한 요리가 있는데 전통적인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우리가 즐겨 찾는 음식 삼계탕과 영계백숙 이외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인기 있는 닭볶음탕이 있다. 닭볶음탕은 닭과 감자를 먹기 좋게 토막 내어 냄비에 넣고 매운 양념장과 버무려 바삭하게 끓여 낸 닭고기 요리로 닭매운찜이라고도 한다. 국물이 많은 탕(湯)과 국물이 거의 없는 찜의 중간 형태로, 조림에 더 가깝다. 한국의 전통요리 가운데 하나이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요리법이 다르다.

『해동죽지』에 나오는 도리탕은 평양 성내의 명물로 닭은 반으로 갈라 향신료를 넣고 반나절 동안 삶아 익힌 일종의 곰국인데 지금의 닭도리탕과는 다르다. 현재의 닭도리탕과 비슷한 닭볶음은 『조선부쌍신식요리제법』에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새우젓국으로 간을 맞춘



것이 특이하다. 『임원십육지』에는 닭초라 해서 닭볶음 요리법이 나온다.

지금은 닭볶음탕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닭 도리탕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이었다. ‘닭도리탕’은 ‘도리’가 ‘새’를 뜻하는 일본어 ‘도리’(とり)라는 주장 때문에 외래어로 생각되어 왔고, ‘닭새탕’이라는 말이 되므로 다듬어야 할 말로 여겨졌다.(‘닭볶음탕’으로 다듬은 바 있다) 그러나 근래에 ‘도리’가 일본어가 아니며 ‘도려내다’의 ‘도리다’이므로 ‘닭도리탕’은 우리 고유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도리’가 일본어라는 그동안의 설에는 뚜렷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닭도리탕’의 어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야겠다. 이 닭볶음탕이 일반화된 것은 안동찜닭 덕분으로 봐야 한다.

흔히들 ‘안동찜닭’을 안동 명문가의 먹거리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동찜닭의 유래 중 하나가 조선시대 안동의 부촌인 안(內)동네에서 특별한 날 해먹던 닭찜을 바깥동네 사람들이 보고 안동네찜닭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다지 신빙성을 얻기는 어렵다. 손상락 안동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안동찜닭은 햇제사밥, 간고등어, 식혜 등과는 달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은 아니다.”며 “1970년대 후반 안동 구시장으로 불리는 재래시장의 닭 골목상인들이 영양가가 충분하면서도 값싸고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보니 만들어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위기 직후에는 한때 음식업계에 안동찜닭 붐이 일기도 했을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리. 보통 ‘닭볶음탕’과 유사한 매운 채소찜 닭과는 달리 간장으로 달달하게 졸여낸 것이 맛의 특징이다. 청량고추의 매콤한 맛과 물엿의 달콤한 맛과 진간장과 조화된 갖은 양념의 담백하고도 감칠맛이 넘친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유행한 안동찜닭이나, 몹시 맵게 만든 불닭 등도 모두 닭볶음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흔히 닭볶음탕을 닭도리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말과 일본어가 무분별하게 혼용된 용어로, 국립국어연구원이 선정한 외래어 순화용어에 들어 있다. 일본어 도리[とり:鳥]는 새나 조류 또는 닭[鶏]을 일컫는다. 따라서 닭도리탕에는 우리말 ‘닭’과 역시 닭을 뜻하는 일본어 ‘도리’가 겹쳐 있어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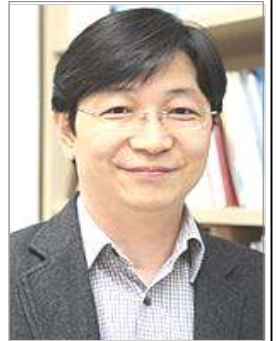
문제는 닭도리탕의 순화어로 만든 닭볶음탕인데 일반적으로 볶음과 탕은 조리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 말 도리(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말 도리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코리아넷〉에서)

[우리말로 깨닫다]

‘알’ 이야기

어휘의 발음을 해 보면 어떤 경우는 발음 자체가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휘 중에 하나가 바로 ‘알’입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는 내용도 좋지만 후렴구가 매력적입니다. 바로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 때문인데 ‘알’이라는 음이 다섯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참 재미있죠. 악기의 소리라든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든지 하는 논의가 있지만 아무래도 묘미는 알의 반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단어에서 ‘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의미도 재미있게 바뀝니다. 묘한 재미를 줍니다. 알이 접두사로 쓰여서 원래 말을 살짝 비트는 맛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휘로 <알밭다>가 있습니다. 이 어휘는 ‘알미럽다’ 등과 같이 방언에서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알밭다는 <밭다>와는 달리 감쪽스러우면서 미운 것을 의미합니다. ‘알미워 죽겠어!’라는 말도 하지만 어쩐지 완전히 미운 감정만은 아닌 느낌입니다. 밭기는 한데 왠지 감쪽함이 있으니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느낌이 납니다. 주로는 ‘말이나 행동이 약빠르고 밭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알미운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니 알밭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알긋다>라는 어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알긋다’도 <긋다>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긋다’는 말은 ‘긋은 날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알긋다’에는 야릇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야릇한 기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쁘다는 느낌만은 아닙니다. <야릇하다>도 어원적으로는 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야릇하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묘한 어휘죠.

비슷한 어휘로는 <알망긋다>가 있습니다. 이는 ‘성질이나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알미운 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알밭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망스럽다>와도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질이나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알미운 듯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알밭다와 연결이 되죠. <알상스럽다>와도 관련이 있는데 ‘몹시 야살을 떠는 듯한 데가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알쌍스럽다>라는 어휘는 ‘예쁘장스럽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이지만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이는 어휘들입니다. <알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는 야살스럽게 신바람이 나는다는 의미입니다. 야살스럽기는 하지만 신바람이 난다는 부정과 긍정의 느낌을 전해 줍니다.

다른 어휘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알개’는 장난꾸러기의 느낌입니다. 야살스러운 짓을 하는 아이를 일컫는데 뭔가 신나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느낌의 아이입니다. 예전에 알개 시리즈의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알개의 느낌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어원이 같은지는 좀 더 공부해야 하지만 <알다>에 해당하는 어휘도 알의 느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언을 포함해서 ‘알상하다, 알쌍하다, 알팍하다, 알삭하다’와 같은 어휘가 있습니다. <알짚었다>와 같은 어휘도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을 생각해 보죠. 청산별곡을 무슨 자연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읽어 보면 분노, 원망, 한숨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밤을 지내기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잠들었다가 일어나서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 참 알긋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가 단순히 노래의 운율을 위한 게 아니라면, 세상에 어긋나 비틀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총체적 받아쓰기>,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사장 3곳에서 펼쳐

<토탈 받아쓰기>행사 참가신청등록이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국제교육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월 14일에 진행된다. 올해 받아쓰기는 행사장 3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주 중앙도시에서 이 행사는 이미 7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사전 참가등록을 위해 사할린 주민들은 <총체적 받아쓰기> 사이트에 들어가 참가지원을 할 수 있다.

받아쓰기대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러시아어 지식을 시험하고, 교양의 향상에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있다.

올해 <총체적 받아쓰기>를 위한 본문은 2015년에 <큰 책>상을 받은 <주레이하가 눈을 뜬다> 소설의 구절 야히나 작가가 작성했다.

행사는 다음 주소에서 진행된다. 프로스펙트 미라, 104(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 고리키 거리, 7-베 (<승리>기념관)와 프로스펙트 포베다, 80 (제2김나지아).

행사 시작시각은 16시이며 행사는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주최 측은 당일 15시 40분까지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화 43-65-83라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на трех площад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открылась 4 апрел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акц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14 апреля. В этом году диктант будет читать на трех площадках.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акция пройдет уже в седьмой раз.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роприяти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 «Тотального диктанта».

Цель диктанта —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оверить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 повышению грамотности.

Текст для "Тотального диктанта" в этом году написала Гузель Яхина, автор романа "Зулейха открывает глаза", получившего в 2015 году премию "Большая книг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по адресам: проспект Мира, 104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ул. Горького, 76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и пр. Победы, 80 (гимназия №2).

Начало акции — в 16:00. Она старту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Участники просят приходить на площадки пораньше, к 15:40.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3-65-83,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사할린 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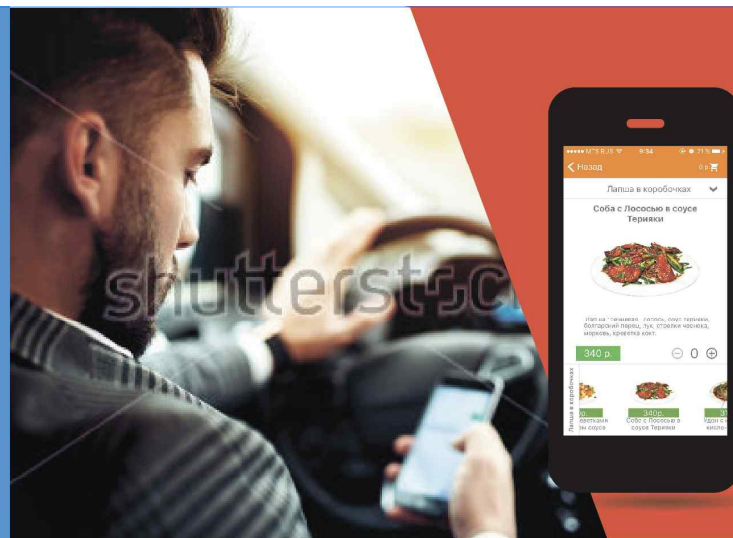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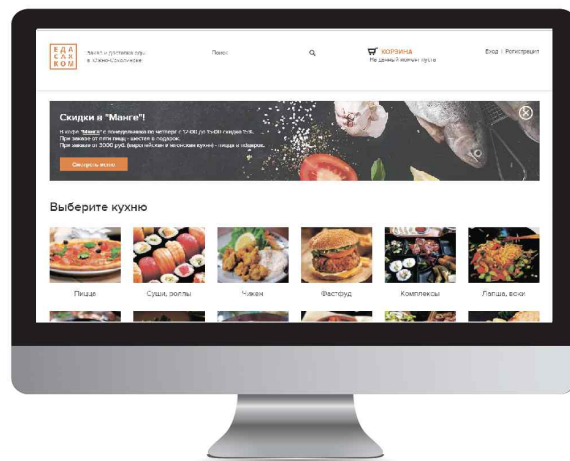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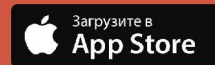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